

9

Tap8Tap

Short Film

7

PARKING



Genre

Dance Film

Log-line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를 즐겨라.

미래는 누구도 전혀 알 수 없다.

우리는 현재보다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선택을 하기 꿈꾸기 위해
살아가는 데에 있어 수많은 고민들을 한다.

많은 고민들 속 우리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행복을 느낄 때가 있다.

Synopsis

누워있는 주인공 옆에는 재즈음악이 흐르고 있다. 재즈에 맞춰 뛰는 주인공의 심장소리가 들린다.
심장 뛰는 소리와 주인공의 머리 위에는 남은 시간 5:00분이 보인다.

심장소리는 째깍째깍 소리로 바뀌며 주인공의 두 눈이 나온다
눈을 감으면 빠르게 지나가는 저승사자들이 보이고,
다시 한 번 눈을 감으면 째깍째깍 소리와는 반대되는 주인공의 눈 움직임과 얼굴 표정,
끔빱끔빱 다소 느린 눈의 움직임이 보인다.

(노래가 시작된다.)

몸을 스트레칭 하 듯 목을 풀고 있는 주인공, 정장을 챙겨 입고,
앞으로 나아가 몸을 크게 돌려 나비 넥타이를 하고,
마지막으로 모자를 챙겨 발을 모으고 지팡이를 탁탁 두드린다.
그 후 발을 탁하고 모으면 스포트 라이트가 켜진다.

Synopsis

(노래의 템포는 빨라지며)

체스판 바닥 뒤 블랙과 화이트가 반반 섞인 뒷 배경이 보이고,
주인공은 어디로 갈지 고민하며 좌우를 둘러본다. 블랙을 오래 응시하는 순간
블랙 쪽으로 몸이 이끌리며 탭댄스를 춘다.

탭댄스를 추는 주인공의 발은 체스 칸을 넘어서지 않게 조심한다.

역광이 주인공에게 비춰지지만, 미련이 남은 듯 화이트 쪽을 계속 바라보는 주인공

(노래의 사운드는 좀 더 역동적으로 점점 커지고)

탭댄스를 추며 블랙의 공간에서 들어 가면 갈수록 형광색의 아름다운 색들이 얼굴에 묻고,
다가가니 물음표가 그려진 예쁜 풍선들이 있다.

크기가 커서 언제 터질까 위태로워 보이지만 호기심에 다가가 만져보다가 풍선은 터진다.

터진 풍선 속 안에서는 반짝이 등의 반짝 거리는 것들이 나오고,
어느새 주인공의 얼굴은 마치 무대에 나가기 위한 메이크업이다.

Synopsis

블랙과 화이트가 교차한 좁은 길이 나오고 화이트의 공간으로 빠진다.

(가장 신나는 템포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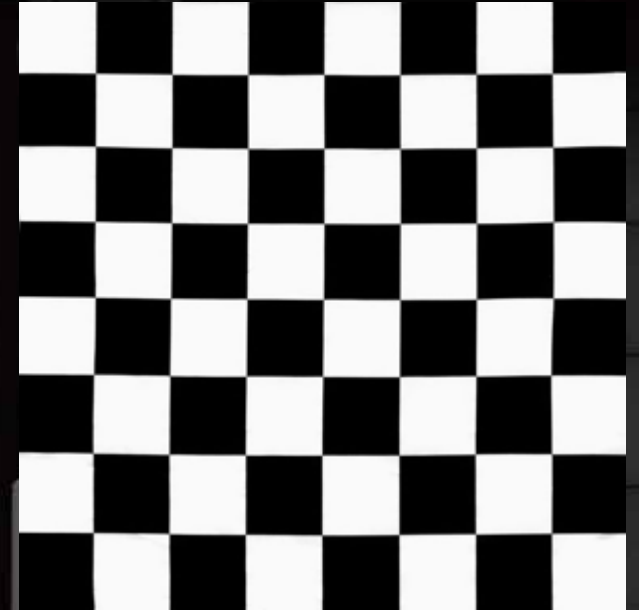
흰 공간 속 좀 더 자유로운 탭댄스의 몸짓과 색깔의 그림자가 보이며 맘껏 탭댄스를 뽐낸다

주인공의 웃는 얼굴이 보인다. 눈을 감으며 끝이 난다.

Reference



Reference



Tap Dance Shoes

Rocation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영상촬영스튜디오

9

8

7

PARKING



Thank You

Contact to

010-3325-4723

or

cinergy_22@naver.com